

해외에 불서 보내기 ‘활발’

2005년 10월 대한불교진흥원은 두 명의 간부급 직원을 미국에 2주간 파견했다. 목적은 미주 지역 한국사찰들을 둘러보고 해외포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오는 것이었다. 이들은 LA관음사, 정혜사 등 10여개 사찰을 둘러본 결과 공통점을 발견했다. 영어로 된 한국불서가 거의 없어 현지인들에게 문서 포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불교진흥원은 2006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불교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국제포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서 발간된 영문판 한국불서 <WHAT IS KOREAN BUDDHISM?> 600부를 미주지역에 보냈다. 이 책은 곧 미국 뉴욕사원연합회와 남가주불교사원연합회를 통해 회원 사찰 40여 곳에 전달됐다.

현지언어 번역 불서 보급 중요성 대두 불학연구소 등 외국어 번역사업 활발

이처럼 올해 들어 영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한국불서를 해외로 보내 포교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외 문서 포교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지관 스님 취임 이후 ‘한국불교 세계화 및 국제포교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불서번역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조계종의 ‘한국전통사상서 간행’ 계획에 따르면, 3년 내에 고승문집 등 총 11권의 전

통사상서를 영역(英譯)하게 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지난해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첫 결과물로 오는 6월경 <원효> <선어록> <삼국유사> 영문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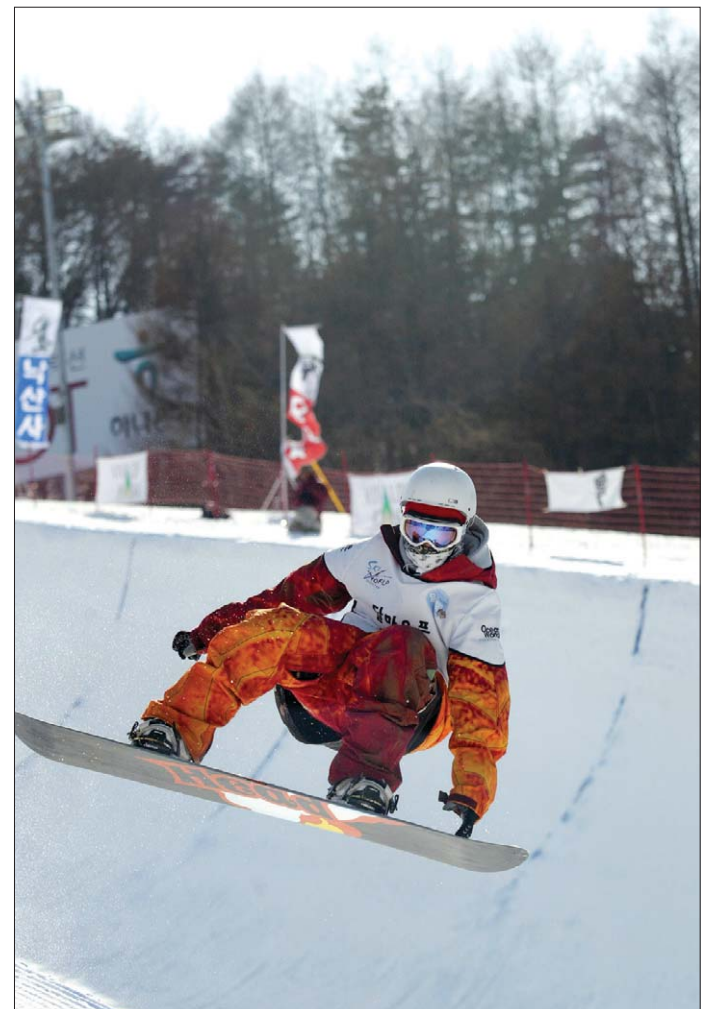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한국 간화선 수행법 전통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간화선> 영문판을 펴낼 계획이다. 불학연구소는 최근 2005년 발간된 <간화선>의 인용문을 한국 조사스님들의 선어록으

로 교체해 개정판을 내고, 이를 토대로 영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종 스님은 “간화선 수행법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간화선>의 영역본 발간은 선(禪)의 세계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의 50대 문화유산>을 영문과 독어 불어판으로 9만부를 펴낸 금강경독송회도 상반기중으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 호주 등지의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이 책을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진흥원이 발간하는 <불교와 문화> 고영인 편집장은 “진흥원은 해외불서 보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진흥원 홈페이지에 마련된 후원금 모금에 동참하면 불자들이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달마야, 날자 1월 30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스키장에서 제6회 달마야 오 큰 국제 스노보드 대회가 열렸다. 조계종 용문사 주지 호산 스님이 주최하고 봉선사 봉은사 월정사 안국선원 낙산사 등이 협찬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주니어, 아마추어, 프로 등 총 97명의 보더들이 참가해 1년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홍천/글·사진 = 박재원 기자

동국대 로스쿨 예비선정 탈락

학교·종단 ‘유감’ 표명...강력 대응 방침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1월 30일 법학교육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25곳 로스쿨 선정 대학에서 탈락했다. 오영교 총장과 교무위원 일행은 1월 31일 교육부를 향의 방문했다. 이어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해 탈락 경위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지관 스님은 “동국대가 로스쿨 예비선정에 탈락된 것은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한 뒤 “차후라도 선정 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방면에 앞서 가진 긴급 교무회의에서 동국대는 “심사결과

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심사 정보를 공개하라”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영교 총장은 “만해관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마련은 물론 교원확보 등 학교가 로스쿨 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준비했던 상태였다. 예비인가 선정 배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본지와외의 전화 통화에서 한진수 부총장은 “동국대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결과다. 최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말했다. 예비 선정 문제점에 대해

우선 지역안배의 불균형을 지적한 한 부총장은 “고르게 지역안배를 했다고 하지만 경기·강원 등을 수도권에 포함시킨 것은 지역분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총장은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다른 종교사학들은 다 포함됐는데 불교계 종합학교가 빠진 것은 종교적 형평성에도 어긋난 일”이라고 성토했다.

1월 31일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동국대의 문제는 곧 조계종의 문제고, 불교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종단과 재단·동국대가 동국대 로스쿨 선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월 31일 오전 발표하기로 한 선정 발표를 2월 4일로 미뤘다. 조동섭기자

올 연등축제 5월 4일

동국대 운동장서 개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펼쳐지는 연등축제가 올해는 5월 4일 동국대 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리게 된다.

그동안 봉축 어울림마당과 제등

행렬이 치러진 동대문운동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의 공원화 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장소 문제로 고민해 온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이 같이 결정하고, 1월 29일 연등축제 행사 계획안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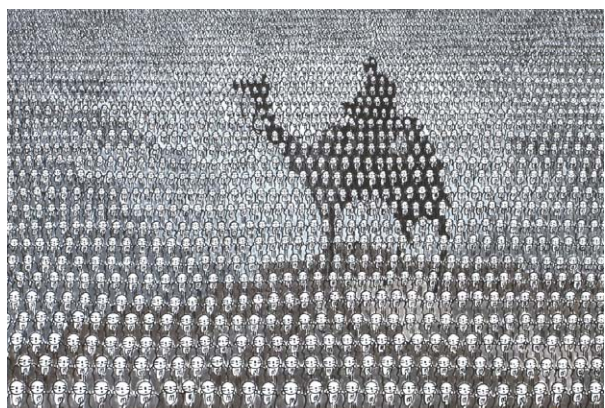
계획안에 따르면 같은 날 치러지

던 어울림마당과 불교문화마당·제등행렬 행사가 분리 개최된다. 어울림마당은 4월 27일 올림픽공원 원 제조경기장에서, 불교문화마당과 제등행렬은 5월 4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진행된다.

<4면에서 계속>

여수령 기자

히허당의 세상만사



■ 순례자 내 지난날을 되돌아보니/아무런 할 일없이 오고 갔었네. 지금 길을 멈추고 생각해보니/은 일도 없고 간 일도 없네. 몸을 굽혀 앞을 보니/원발은 뜨고 오른 발은 달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 010-7504-4521 (간영희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100% 순수 우리콩으로 만든 전통사찰메주
 가미술에 장작불로 삶아 황토집에서 띄워 장맛이 좋습니다.

마음 닦으며 수행 정진과 정성으로 빚은 수공메주
메주 1말 75,000원

* 동종 라이선스에서 숙성된 장류 및 정국량 안내
 원장: 양, 국장: 조원경, 교수장: 보리재, 장기부, 용기부, 3차국, 9차국, 정국양: 양, 양, 양, 재용, 무함

제조원: 포항 금강정사 (국산정품)
 포항금강정사 054)261-2231 서울 02)742-0172 대구 053)425-3063 부산 051)514-3566 대전 042)862-5539 울산 052)211-2161 강릉 033)644-9009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염용(법당) 전기조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그늘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조와는 달리 무공해임
 ▶ 시간 조절 가능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 (02)2266-2634, 2263-2638 / 구입문의 (032) 582-6235~6 /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 (국산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윌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윌라멘트로 빛이 윌드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건전지용, 방생, 탐들이 행사용
- 청사조를 및 초롱 걸이대
- 연등, 영가위패

연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